

##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김 은 경\* 이 정 숙  
한양대학교

이 연구는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표정인식과 의도귀인의 편향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과 방법을 보면, 서울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737명을 대상으로 학대경험, 표정인식의 편향, 모호상황에서의 의도귀인 경향성, 우울,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모형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적합도를 검증하고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결과를 보면 학대경험 자체가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대로 인해서 유발되는 표정인식의 편향이 의도귀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의도귀인의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표정인식편향 자체는 우울이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도귀인 즉,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이고 의도적으로 판단하는 해석과정을 거쳐서만 우울과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서 높은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 이면에서는 얼굴표정에 나타난 정서의 인식과 의도를 귀인하는 방식 등 사회적 단서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의 문제가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대로 인한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정인식이나 의도귀인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주요어: 아동학대, 표정인식, 의도귀인, 우울, 공격성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많은 심리적 부작용을 낳는다. 이를 두고 Herman(1992)은, 성인기의 학대가 이미 형성된 성격구조를 파괴하는 데 반해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그 자체가 성격을 형성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한다. 학대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학대받은 아동은 여러 영역에서 심리적인 어려움과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는데 그 부적응 증상

\* 교신저자: 김은경, E-mail: enkkim@gmail.com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한 것임.

중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는 주요한 문제가 우울과 공격성이다(장지영, 2002; 안동현, 2003; 장화정, 2004; Shields, Cicchetti, & Ryan, 1994). 학대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더 심각한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며(Silverman, Reinherz, & Giaconia, 1996), 행동과 적응에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안동현 등, 2003). 안동현 등(2003)이 신고된 3-18세의 피학대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대에 의한 행동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과도한 공격성의 표출이었고, 적응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울과 이로 인한 각종 후유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화정(2004)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4-1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아동의 심리상태에서는 우울이, 행동에서는 사회성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울과 공격성, 이 두 가지는 아동의 내적인 안정감과 외적인 지지망을 모두 위협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취약성을 안고 삶을 시작하는 학대받은 아동들은 성장하면서도 다양한 수준의 부적응 증상을 보이게 되며, 결국 성인이 되어서는 약 25-30% 정도가 다시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Kaufman & Zigler, 1989)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면서 학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Herman, 1992; Wolfe, Wekerle, Reitzel-Jaffe, & Lefebvre, 1998) 이유는, 학대경험이 어린시절 경험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피학대 아동의 인식과 사고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복되는 학대와 정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대받은 아동은 부적응적인 적응방식을 발달시키고, 그러한 심리적 방어 내지 비효율적인

적응방식은 결국 학대적인 환경이 제거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 것이다. 즉, 학대경험이 우울이나 공격성 등 부적응적인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가 전개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독특한 정서인식과 인지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우울과 공격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모델이다. Dodge는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우울하게 되는 과정을 정보처리모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개인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 상황이 제공하는 다양한 단서들을 어떻게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처리하느냐에 따라 행동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높은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 것도 정보처리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학대적인 상황에서 양육되었다고 해서 모든 아동이 같은 수준의 우울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그 상황에서 접하는 많은 사회적 단서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아동 개인의 반응이나 심리 사회적 적응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처리모델에 의하면 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응은 몇 단계의 연속적인 정보처리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며, 각 단계에서의 오류 내지는 왜곡이 부적절한 반응행동을 야기한다. Dodge(1986)는 그 과정을 부호화, 해석, 반응탐색, 반응 결정의 네 단계로 나누었다. 그런데 특히 내면적인 정보처리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여겨 볼 부분은 부호화 단계와 해석단계이다.

부호화란 다양한 자극과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단서를 찾아 적절하게 부호화하는 것(encoding social cues)을 말한다. 우리의 인식범위 안으로는 무수히 많은 자극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중 우리는 특정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Dodge, 1986), 이 과정에서 얼마나 편파적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단서를 선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부호화의 핵심이다. 다음의 해석단계(interpretation process)에서는 앞서 받아들인 단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도(intention)를 나름의 방향으로 해석하여 동기를 판단함으로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한다(Dodge, 1986). 이러한 두 단계의 자극선별과 상황판단이 반응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우울과 공격성이라는 반응에 접근하면서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달적으로 볼 때 부호화 패턴은 나이가 들수록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Dodge & Newman, 1981). 그러나 연령의 증가 외의 요인들도 부호화에 영향을 미쳐서, 가령 공격성이나 우울이 높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져도 더 적은 수의 단서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또 주의를 분배하는 방식도 편파적이어서, 몇몇 적대적인 단서에만 제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다(Dodge, 1993; Ingram, 1984; Milich & Dodge, 1984). 다른 연구들(한영옥, 1999; Finch & Montgomery, 1973; Slaby & Guerra, 1988)에서도 공격적이거나 우울한 아동은 주어진 상황정보들 안에서 상대의 의도가 적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를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호화단계의 오류는 아동의 얼굴표정인식에 관련된 표정읽기 실험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동작, 행동, 목소리 등을 통해 상대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며, 특히 아동은 주 양육자의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사회적 참조(social referencing)를 습득하여 자신의 정서적 반응에 적용한다

(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그런데 학대받은 아동은 부모와의 정서적인 교류가 빈약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의 인식이나 해석과정이 적절히 학습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Cicchetti & Beeghly, 1987). 부호화와 해석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인식에 관련된 많은 실험(Pollak, Cicchetti, Hornung, & Reed, 2000; Pollak & Tolley-Schell, 2003)에서 학대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얼굴표정단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렇지 않은 표정들을 슬픈 표정이나 화난 표정으로 잘못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Pollak et al., 2000). 특히 학대받은 아동은 분노 정서에 과민하여, 다른 표정까지도 화난 표정으로 잘못 인식하는 적대적 편향을 보였다(Pollak & Tolley-Schell, 2003). 예를 들어 Pollak과 Kistler(2002)의 실험에 의하면 학대받은 아동은 다양한 얼굴표정들을 적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대받지 않은 아동들이 두려움이나 슬픔으로 지각하는 얼굴표정도 화난 표정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아동은 화난 표정을 더 빨리, 정확하게 간파해내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Camras et al., 1990; Pollak & Kistler, 2002; Pollak & Sinha, 2002). 가령 서서히 변화하는 표정 안에서 특정한 정서를 담은 표정을 찾아내라고 했을 때, 학대받은 아동은 통제집단에 비해 훨씬 앞서서 화난 표정을 알아차렸다. 또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더 적은 표정단서만으로도 분노를 더 빨리 인식해내는 특성을 보였으며(Pollak & Sinha, 2002), 학대받은 아동들은 전반적인 정서인식에서는 대체로 낮은 수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적대적 정서를 간파해내는 데에서는 통제집단의 아동보다 더 좋

은 수행을 보였다(Camras et al., 1990).

이에 대해 연구자들(Pollak, Cicchetti, & Klorman, 1998; Pollak, Klorman, Thatcher, & Cicchetti, 2001; Pollak & Sinha, 2002)은 실제의 생활에서 최소한의 시각적인 정보만으로 상대의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이 학대받는 아동에게는 중요한 적응적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켰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들은 학대라는 외상적인 경험 때문에 그것을 연상시키는 특정 정보에 더욱 민감해져서, 다양한 정보에 적절히 주의를 분배하지 못하고 위협적인 자극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Pollak et al., 1998; 2001). 즉, 학대 받고 자라면 정보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부터 학대를 암시하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단서에만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식으로 부호화 과정을 편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처리모델의 다음 단계인 해석단계의 핵심은 상대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받아들인 단서를 바탕으로 상대의 동기나 의도를 판단함으로써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Dodge, 1986). 의도귀인(intent attribution)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동기나 이유를 추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해석단계는 의도귀인과 관련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데에는 상황이나 자극 자체보다는 내면의 인지적 평가과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 연구된 바에 따르면, 동일한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아동의 공격반응이나 우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한영옥, 1999; Slaby & Guerra, 1988). 또 상대의 의도에

대한 평가와 귀인은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Berkowitz, 1974; Dodge, Murphy, & Buchsbaum, 1984).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연구에서 타인의 의도를 귀인하는 데 있어서 공격성(Dodge & Coie, 1987; Dodge & Somberg, 1987)이나 우울(Ingram, 1984; Quiggle et al., 1992)이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의도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볼 때 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학대적인 양육경험이었다. 가령 뛰어가다가 누군가에게 부딪쳐 넘어지는 것처럼 상대의 의도가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상대의 행동을 적대적이고 고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Crick & Dodge, 1996; Dodge, Pettit, Bates, & Valente, 1995). 또 취학 전에 경험한 가정에서의 학대가 이후 초등학교 때의 정보처리 및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본 Dodge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는 그로부터 몇 년 후인 초등학교 3, 4학년 때의 사회 정보처리의 왜곡 및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를 받았던 아동들은 후에 부호화 오류와 적대적 귀인편향을 보였으며, 취학 전 학대경험은 초등학교 시기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양육환경과 인지처리 과정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이 밖에도 많다. 가령 Marcus 등(Marcus, Lindahl, & Malik, 2001)에 의하면 부부갈등과 이로 인한 가정 내 혼란은 자녀의 인지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처리과정의 결함이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연구(Dodge et al., 1995; Gershoff, 2002; Marcus, et al., 2001)를 통해서, 신체적 학대나 체벌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들이 아동의 인지와

정을 왜곡시켜서 결국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학대하는 가정에서는 애매함을 가장한 고의가, 실수를 가장한 폭력이 실제로 자주 나타난다(Herman, 1992).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동이라면 누군가에 의해 떠밀리는 행동을 적대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할 만한 충분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습득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상대 의도를 적대적, 의도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아동의 내적인 정보처리과정의 한 단계로 자리 잡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의도적·적대적 귀인방식은 가정 밖의 상황으로 일반화되어, 고의성이 없는 또래나 교사의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빈번하게 상대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적으로 귀인하면서 아동은 위축되고 긴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왜곡된 혹은 편향된 귀인이 결과적으로는 학대받은 아동들이 더욱 우울해지고(Ingram, 1984; Quiggle et al., 1992) 공격적이게 되는(Dodge & Coie, 1987; Dodge & Somberg, 1987)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대받은 아동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데, 그 경로를 Dodge의 사회정보처리모형을 적용해서 분석해보면, 정보처리과정의 부호화와 해석단계의 오류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대를 받으면 부호화과정에 오류가 생겨서 다양한 외부 자극들을 정확하고 균형있게 부호화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부호화과정이 왜곡되고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은 상황 해석 역시 편향적이게 되어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된 해석 때문에 학대받은 아동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보호요인, 위협요인이나 학대의 부정적 영향에 치중해 있었다. 그래서 학대로 인해서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기까지의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최근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인식특성에 관련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피학대 아동이 보이는 정서인식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하였을 뿐, 그러한 정서인식특성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Dodge의 정보처리연구는 이론상 초기단계에서 부호화와 해석단계를 구분하였으면서도 연구과정에서는 그러한 두 개의 단계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의 측정치로 두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Dodge나 이후의 사회정보처리모형을 사용한 연구들(Crick, 1995; Crick & Dodge, 1994, 1996; Crick, Grotpeter, & Bigbee, 2002; Dodge, 1986, 1993; Nelson & Crick, 1999)은 부호화와 해석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실증적으로는 이러한 두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보처리모형을 가지고 아동의 공격성이나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을 논할 때에도, 정서인식단계인 부호화와 의도귀인에 관련되는 해석의 두 단계가 각각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호화 과정에 해당하는 표정인식과 해석과정에 해당하는 의도귀인을 따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각 단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정서인식과 의도귀인으로 사회정보처리과정의 부호화와 해석단계를 분리 측정하여,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인식과 의도귀인의 편향이 매개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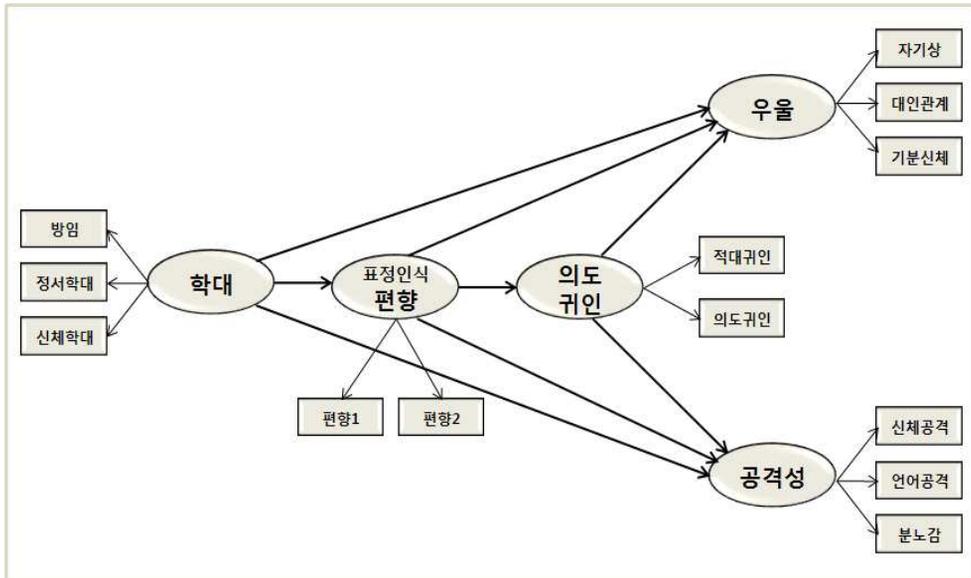


그림 1. 학대, 표정인식편향, 의도귀인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형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학대 경험은 표정인식편향과 의도귀인을 매개로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가설적인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시내 4개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재학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810명이었으나, 이중 설문지의 한 면 이상을 기재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7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737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를 초등학교 4,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때가 얼굴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성인과 유사해지는(Ekman & Oster, 1979) 시기이자 아동의 우울이나 공격성이 안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초등학교 고학년은 되어야 설문지의 문항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49.4%, 여학생이 50.6%로 남녀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학년은 4학년이 23.5%, 5학년이 50.2%, 6학년이 26.3%로 5학년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모의 연령을 보면 아버지는 80% 정도가 40-49세에 분포하였으며 어머니는 60% 정도가 40-49세에, 35% 정도가 30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43.0%, 5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 졸업으로 아버지는 30.7%, 어머니는 24.4%였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학력이 약간 낮은 편이었다. 홍두승(1992)의 직업분류기준을 참고로 부모의 직업

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로는 중간 정도의 직업군인 자영업, 사무 기술직이 전체의 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경험은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세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Bernstein 등(2003)이 제작한 아동기 외상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와 취지가 다르다고 판단된 성적 학대에 대한 문항을 삭제하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정 내에서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 경험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 중 방임은 의식주 등 기본적인 관리의 소홀, 보살핌의 결핍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적 학대는 훈육차원의 체벌과는 구별되는 구타와 폭력행위들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정서적 학대는 모욕을 당하거나 언어적으로 학대받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7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방임이 .67, 신체적 학대가 .83, 정서적 학대가 .80으로 나왔다.

### 표정인식의 편향

표정인식의 적대적 편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된 한국인의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1998)의 사진 중에서 기쁨, 놀람, 두려움, 슬픔, 화남, 경멸 등의 정서를 담은 6개의 표정사진 3세트,

총 18장의 사진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각의 사진에는 기쁨, 놀람, 두려움, 슬픔, 화남, 경멸 등 6개의 보기가 주어졌으며, 아동은 제시된 표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서 이름을 하나 선택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진들은 이미 특정 표정을 표상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지만, 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인식하는 데에는 절대적 의미의 정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경자, 배도희, 2002). 따라서 표정인식에서 안정된 수준을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Ellis et al., 1997) 각 사진들에 나타난 표정을 알아보는 사전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인 남녀 256명(남자 106명, 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각 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여, 그 일치도가 75% 이상인 사진을 선별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점수화 과정에서는 기쁨, 놀람, 두려움, 슬픔으로 평정된 표정을 화남, 경멸로 오판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에 0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를 표정인식의 적대적 편향 점수로 채점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표정자극을 더욱 적대적으로 편향하여 지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표정인식의 적대적 편향의 Cronbach's  $\alpha$  값은 .68이었다.

### 모호상황에서의 의도귀인

모호상황에서의 의도귀인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Crick(1995)의 가설적 상황도구(hypothetical-situation instrument)를 우리나라의 실정과 연구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열 개의 장면을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장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걷다가 아는 애들 두 명을 보고 내가 "안녕?"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애들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대답 없이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

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내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장면에 대한 상황 이야기가 문장으로 제시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동의 적대적, 의도적 귀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각각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적대적 귀인에 관련된 질문의 구성에서는 Crick(1995)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한 후, 적대적인 귀인에는 2점을, 비적대적 귀인에는 1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합산하였다. 의도적 귀인에 대한 문항은 Crick(1995)의 원래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고의성을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결국 적대적 귀인, 의도적 귀인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의 의도를 더욱 적대적, 의도적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적대적 귀인 .67, 의도적 귀인이 .73이었다,

### 우울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기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해 Kovacs(1985)가 개발한 아동용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이는 7-17세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총 27 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각 문항은 우울 정도를 기술하는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은 그중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기술해주는 문장을 선택하고, 각각에 대해 0점에서 2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역, 표준화한 것을 바탕으로 하되, 아동에게는 3요인구조

가, 청소년에게는 4요인구조가 가장 적합하다는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 김지혜(2005)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기분과 신체적 증상, 대인관계문제, 부정적 자기상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부정적 자기상이 .75, 대인관계문제가 .69, 부정적 기분과 신체화가 .77로 나왔다.

###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AQ)를 사용하였다. AQ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서수균, 권석만, 2002)를 토대로 하고, AQ에 대한 정동화(1995)의 번역도 참고로 하여 아동에게 맞게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AQ는 원래 총 29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및 적대감 등 네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도귀인의 측정변인인 적대적 귀인에서 측정하고 있는 적대감과 공격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AQ에서 적대감 관련 문항을 빼고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형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심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신체적 공격성이 .72, 언어적 공격성이 .81, 분노감이 .77로 나왔다.

### 절차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예측한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적합도와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표본 크기에 민감해서 자료가 클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chi^2$  검증 대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는 *TLI*, *CFI*, *RMSEA*와 *GFI*를 선택하여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특히 *RMSEA*와 *TLI*는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간명성까지도 고려하는 좋은 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0).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수준의 적합도라 할 수 있으며, .10보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TLI*, *CFI* 및 *G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신뢰성 검증과 빈도분석에는 SPSS 12.0 프로그램을,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는 AMOS 6.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

학대, 표정인식편향, 의도קי인, 우울,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각 변인간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공격성과 표정인식편향을 제외한

표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n=737)

	학대	표정인식	의도קי인	우울	공격성
학 대	1				
표정인식	.093*	1			
의도קי인	.153**	.078*	1		
우 울	.423**	.126**	.218**	1	
공격성	.386**	.058	.361**	.445**	1
평균	1.599	.030	2.202	1.538	2.791
표준편차	.516	.080	.460	.265	.764

\*  $p < .05$ , \*\*  $p < .01$

각 변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형의 적합성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고 유의한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RMSEA* 값이 .07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값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TLI*도 .91로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CFI*는 .93, *GFI*는 .95로 모두 .90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모형의 분석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학대, 표정인식 편향, 의도קי인이 우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은 표정인식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RMSEA	TLI	CFI	GFI
276.502	57	.07	.91	.93	.95

편향( $\beta=.164, p<.01$ ), 우울( $\beta=.463, p<.001$ ), 공격성( $\beta=.458, p<.001$ )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받은 경험이 심해 질수록 상대방의 표정을 적대적인 것으로 편향해서 인식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하며, 또한 더욱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표정인식편향은 의도귀인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beta=.138, p<.05$ ), 우울( $\beta=.064, ns$ )과 공격성( $\beta=.000, ns$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굴표정을 적대적인 것으로 편향해서 인식한다고 해서 더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이게 되지는 않지만, 상대의 의도를 더 적대적, 의도적인 쪽으로 귀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의도귀인은 우울( $\beta=.180,$

$p<.001$ )과 공격성( $\beta=.375,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효과의 분해

변수들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였다. 표 3의 결과를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변수별 인과효과를 비교해보면, 우울에 대해서는 학대가 .474, 표정인식편향이 .089, 의도귀인이 .225의 효과를 보여서 학대경험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공격성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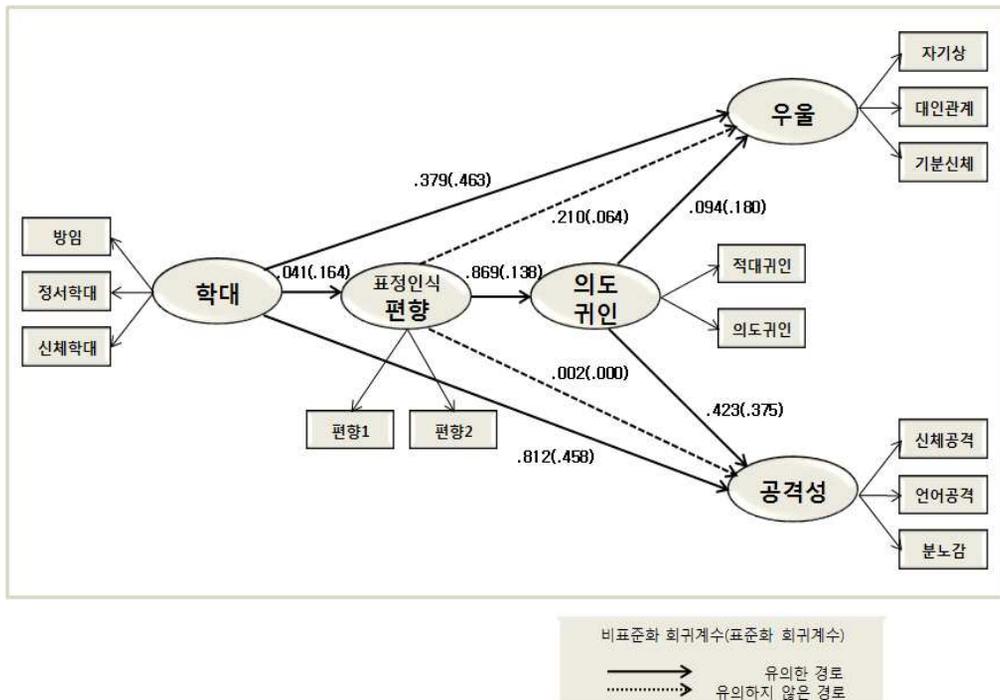


그림 2. 학대, 표정인식편향, 의도귀인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와 비표준화, 표준화 경로계수

표 3. 변수의 효과 분해

모형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 대	→ 우울	.376 (.459)	.012 (.015)	.388 (.474)
표정인식편향	→ 우울	.177 (.054)	.114 (.035)	.291 (.089)
의도귀인	→ 우울	.138 (.225)	.000 (.000)	.138 (.225)
학 대	→ 공격성	.810 (.457)	.015 (.008)	.825 (.465)
표정인식편향	→ 공격성	-.115 (-.016)	.478 (.067)	.363 (.051)
의도귀인	→ 공격성	.580 (.436)	.000 (.000)	.580 (.436)

비표준화효과 (표준화효과)

는 학대경험이 .465, 표정인식편향이 .051, 의도귀인이 .436의 효과를 보여서 역시 학대경험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 논 의

이 연구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서 높은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 과정에서 정서인식과 의도귀인 등 사회적 단서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인식과 의도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 자체가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대로 인해서 유발되는 표정인식의 편향이 의도귀인에 영향을 미치고, 의도귀인의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우울과 공격성이 유발되는 과정에는 사회적 단서에 대한 부호화와 해석과정이 개입된다. 많은 정보들 중 특정 자극을 선별하여 부호화하고, 이것을 토대로 과거 경험 등을 관련시켜 상황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특정 정서반응이나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부호화나 해석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우울과 공격성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학대받은 아동이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고한다는 것은 정보처리의 어느 단계에서 오류나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학대받은 아동은 정보처리의 초기 두 단계인 부호화와 해석 모두에서 적대적인 편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대받은 아동이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 데에는 이처럼 적대적으로 편향된 부호화와 해석 과정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부호화의 경우, 그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편파되지 않은 단서의 선별과 분류가 필수적인데,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단서에 균등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특정 단서에 효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귀납적 추론방식을 습득하게 된다(Dodge, 1986). 그런데 학대받은 아동은 이러한 추론의 과정에서 정보단서를 과도하게 적대적인 쪽으로 편향하여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불균형한 작동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학대경험은 표정인식편향에 영향을 미쳐서, 학대받은 경험이 심해질수록 상대방의 표정을 적대적으로 편향해서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피학대 아동이 이러한 편향적인 인식경향을 보이게 된 이유는 학대적인 환경에서는 양육자의 적대적인 정서에 민감해지는 것이 아동의 안전이나 심리적 대비에 이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적대적인 표정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서 얼굴표정에서 적대적 단서를 찾아내는 데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학대받은 아동이 표정단서에 나타나는 적대적 신호에 민감하고 (Pollak, Cicchetti, Klorman, & Brumaghin, 1997; Pollak et al., 2001), 적대적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며(Camras et al., 1990; Pollak & Sinha, 2002),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적대적 단서까지 알아차리는 것(Pollak & Tolley-Schell, 2003)은 학대라는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는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인식반응이었을 것이다. 만약 피학대 아동이 적대적인 신호에 둔감하고, 적대적인 기색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며, 적대적인 단서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학대하는 부모의 적대적인 태도에 빨리 그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서단서의 인식과정에서 보이는 적대적인 편향은,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귀인하게 하며, 이러한 의도귀인은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쳐서 아동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공격적이게 만든다. 학대받은 아동이 우울과 공격성 등의 내적, 외적인 부적응을 보이게 된 이면에는 이러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편향과 왜곡이라는 문제가 내재해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학대경험이 표정인식편향에 영향을 미치고 표정인식편향이 의도귀인을 통해서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정인식의 편향 자체는 우울과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도귀인 즉,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판단하는 해석과정을 거쳐서만 우울과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복되는 실험들(Camras et al., 1990; Pollak et al., 1997, 2001; Pollak & Sinha, 2002; Pollak & Tolley-Schell, 2003)을 통해서 학대받은 아동이 표정인식에서 적대적으로 편향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의 실험은 이러한 편향 자체가 우울이나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령 부호화 과정에서 상대의 다양한 표정들을 분노나 경멸의 정서로 오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왜곡된 부호화에 근거해서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해석과정에서의 편향이 없다면 특별히 더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받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해석과정에 개입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해석 이전 단계인 표정인식 단계에서 적대적으로 편향하는 경향을 다루어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극에 대한 인식과정인 부호화 과정은 대개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학습되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반면에 해석단계에는 인지적인 측면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의식적인 재검토와 논박(Beck, 1976; Beck, Rush, Shaw, & Emery, 1979)을 통해 편파되지 않은 귀인태도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의도적, 적대적인 귀인은 Beck(1976)의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비합리적인 사고이며, 그러한 사고과정에 개입하여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습관을 바꿔주는 것은 인지적인 과정이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다. 더욱이 표정인식편향

자체가 공격성이나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의도귀인과정에 개입하는 것만으로 공격성과 우울에 이르는 과정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물론 일상적인 경험이나 혹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각 얼굴 표정과 거기 담긴 정서를 재점검하여 편향적인 인식을 교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학대받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은 인지적인 해석 부분인 귀인편향 문제를 다루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학대받은 아동이 높은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 이면에서는 정서인식과 의도귀인의 적대적 편향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학대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표정인식, 의도귀인에서 적대적인 편향을 보였는데(김은경, 2009), 결국 이러한 적대적, 의도적 귀인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인식과 의도귀인에서의 편향된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이를 다루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밝히면서 장차의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선별 문제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하나로 묶어서 학대경험으로 구성하였으나, 기존의 연구를 보면 방임된 아동과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표정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방임된 경험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의도귀인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방임과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따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대가 정서

인식과 해석,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정서인식능력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모델이 연령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지영 (2002).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족 내외의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경 (2009). 학대받은 아동의 표정인식, 표정해석, 의도귀인에서의 반응편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13-129.
- 김은경, 양재원, 정유숙, 홍성도, 김지혜 (2005). 아동 및 청소년에서 소아 우울 척도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693-707.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안동현 (2003). 아동학대.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1-6.
-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홍강의, 이재연, 이양희, 조홍식, 광영숙 (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연구, 7(1), 121-139.
-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1998). 표정/제스처에 대한 감정측정기술 및 DB개발. 과학기술부.
- 오경자, 배도희 (2002). 아동 청소년의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인식능력과 심리 사회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15-532.
-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권리연구, 8(4), 777-792.

- 정동화 (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 한영옥 (1999). 품행장애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반사회적 행동과 우울 성향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두승 (1992). 경제발전과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사회과학 연구협회.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dford Press.
- Berkowitz, L.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 Bernstein, D. P., Stein, J. A., Newcomb, M. D., Walker, E., Pogge, D., Ahluvalia, T., & Stokes, J.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reening version of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hild Abuse and Neglect*, 27(2), 169-190.
-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dgeway, D.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sbury Park, CA: Sage.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amras, L., Ribordy, S., Hill, J., Martino, S., Sachs, V., Spaccarelli, S., & Stefani, R. (1990). Maternal facial behavior and the recognition and production of emotional expression by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304-312.
- Cicchetti, D., & Beeghly, M. (1987). Symbolic development in maltreated youngsters: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In D. Cicchetti & M. Beeghly (Eds.), *Atypical symbolic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36, pp. 5-29).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 (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4), 1134-1142.
- Dodge,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 (Org.),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Cognitive perspectives in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18, 77-125.
- Dodge, K. A. (1993).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559-584.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Dodge, K. A., Murphy, R. M., & Buchsbaum, K. (1984). The assessment of intention-cue discrimination cues in children: implications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163-173.
- Dodge, K. A., & Newman, J. P. (1981). Biased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75-379.
-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 Valente, E. (1995).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early physical abuse on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632-643.
- Dodge, K. A., & Somberg, D.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s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 to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Ekman, P., & Oster, H. (1979).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0, 527-554.
- Ellis C. R., Lindstrom K. L., Villani T. M., Singh N. N., Best A. M., Winton A. S. W., Axtell P. K., Oswald D. P., & Leung J. P. (1997). Recogni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by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6(4), 453-470.
- Finch, A. J., Jr., & Montgomery, L. E. (1973). Reflection-impulsivity and information seeking in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 358-362.
- Gershoff, E. T. (2002).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 539-579.
- Herman, J. L. (1992).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 Ingram, R. (1984). Towards an information processing analysis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 443-478.

- Kaufman, J., & Zigler, E. (1989).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pp. 129-150).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vacs, M. (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5-998.
- Marcus, N. E., Lindahl, K. M., & Malik, N. M. (2001).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s social cognitions, and child aggression: A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315-333.
- Milich, R., & Dodge, K. A. (1984).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child psychiatric popula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71-490.
- Nelson, D. A. & Crick, N. R. (1999). Rose-colored glasses: examining the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of prosocial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1), 17-38.
- Pollak, S. D., Cicchetti, D., Hornung, K., & Reed, A. (2000). Recognizing emotion in faces: Developmental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79-688.
- Pollak, S. D., Cicchetti, D., & Klorman, R. (1998). Stress, Memory, and Emotion: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from the study of child maltrea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811-828.
- Pollak, S. D., Cicchetti, D., Klorman, R., & Brumaghim, J. (1997). Cognitive brain event-related potentials and emotion processing in maltrea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 773-787.
- Pollak, S. D., & Kistler, D. J. (2002). Early experience i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categorical representations for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99, 9072-9076.
- Pollak, S. D., Klorman, R., Thatcher, J. E., & Cicchetti, D. (2001). P3b reflects maltreated children's reactions to facial displays of emotion. *Psychophysiology*, 38, 267-274.
- Pollak, S. D., & Sinha, P. (2002). Effects of early experience on children's recognition of facial displays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 784-791.
- Pollak, S. D., & Tolley-Schell, S. A. (2003). Selective attention to facial emotion in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323-338.
- Quiggle, N. L., Garber, J., Panak, W. F.,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Shields, A. M., Cicchetti, D., & Ryan, R. N.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among maltreated school-age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57-75.
- Silverman, A. B., Reinherz, H. Z., & Giaconia, R. M. (1996). The long-term sequelae of

child and adolescent abuse: A longitudinal community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20, 709-723.

Slaby, R. G., & Guerra, N. G. (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I.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

Wolfe, D. A., Wekerle, C., Reitzel-Jaffe, D., & Lefebvre, L. (1998). Factors associated with abusive relationships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youth.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10, 61-85.

---

1차 원고 접수: 2009. 06. 21.

수정 원고 접수: 2009. 08. 16.

최종 게재 결정: 2009. 08. 17.

# The Recognition of Facial Emotion and Attributional Bias Influenced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bused Children

Eun-Kyung Kim Jung-Sook Lee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 that facial recognition and the bias of intent attribution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process that children's experience of maltreatment has influence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With regard to the objects and methods of this study, maltreatment experiences, the bias of facial recognition, the tendency of the intent attribution in ambiguous situa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were examined in 737 elementary students from 4 to 6 grades in Seoul. In order to verify the models, goodness of fit and significant paths were verifi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ccording to the results, although maltreatment experience, itself, had influence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bias of facial expression caused by maltreatment influenced intent attribution and the study found that such the bias of intent attribution had influence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However, the bias of facial recognition, itself, had no influence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intent attribution, namely, the process that interpreted others' intentions as hostility could cause depression and aggression.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children with maltreatment histories showed the biased hostile characteristics in facial recognition, facial interpretation and intent attribution and identified that the bias of facial recognition and intent attribution played a mediating role.

*Keywords: child abuse, facial recognition, intent attribution, depression, aggression*